

평화 인터뷰

돌로레스 가르시아 에스칼란테
멕시코 유카탄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Y 이슈

Y-틴, 대학·청년YWCA 2026 연합인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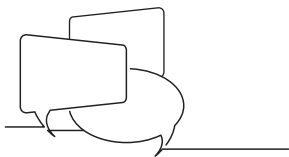
특집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



서울YWCA
2026
0708
Vol.643





단절된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올바른 비판을 위해서라도 지지와 돌봄이라는 기본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비판은 공동된 기반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가능하다.

서로 다른 행성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먼저 관심사의 공유가 필요하다.

전면적 거부도 완전한 동조도 아닌, 들쭉날쭉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서

중간 지대에서 타협과 비판의 전선을 함께 그려 가야 한다.

그럴 때 지지자인 동시에 비판자가 될 수 있다.

— 박동수 『동료에게 말 걸기』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로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졌다.

업무 스타일, 취향, 관심사, 정치적 신념, 성별,
나이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오해와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을 빈번하게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아예 대화를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버릇이 생겼고, 차라리 마음 편히 혼자 시간을
보내는 편을 택하곤 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또래 청년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나와 다른 요소를 내세워 타인을 범주화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다.

마치 무균실 안에 기거하며 상처받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범주화와
거리 두기가 나에게 얼마나 유용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자연스럽게 묻어낸 얼룩을 보며 그 얼룩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가능해 보는 것이 서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가 말하듯

“대화 속에서 타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타인의 표현을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지향에 부합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만 골라

관계를 맺는 태도가 아니라, ‘맞아들임’ 즉

나와 다른 세계를 가진 타인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는 그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동료로

받아들이라는 어쭈잡은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을 헤아리고, 그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비판해야 하는지 나의 언어로 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화는 서로의 다름에서 기인한 언어들이 치열하게

길항하는 장소다. 비록 오해와 피로가 수반되더라도

대화의 장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무너뜨리는 비난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킬 건강한 비판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YWCA

2026년 7·8월호 643호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7월 공동기도

공의의 하나님, 세상의 질서가 힘의 논리에 흔들릴 때

당신의 정의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에서 소외된 약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불평등을 바로잡고 약자를 세우게 하소서. 아멘

8월 공동기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광복의 달을 맞아 진리 안에서 자유의 참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타인의 억압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감사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뜨거운 여름, 지친 이들에게 쉼의 그늘을 내려주소서. 아멘

2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4 Y 이슈

Y-틴, 대학·청년YWCA 2026 연합인증식

6 특집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

10 현장 속으로

2026 시민권기축제

12 평화 인터뷰

돌로레스 가르시아 에스칼란테

멕시코 유카탄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14 미술로 읽는 성경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순종의 지도자, 모세

16 서울Y 소식

5·6월 뉴스

7·8월 행사 안내

7·8월 캘린더

19 특별행사

21 성명서

참정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4 후원 소식

28 미디어 아카데미

요즘 밈, 어디까지 웃고 어디부터 차별인가

30 알림터

31 신혼부부학교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황에스터, 독립운동가·제4대 YWCA 회장

「서울YWCA」 2026년 7·8월호 통권 제643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6년 7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최 봄 편집위원장 황성연 편집부위원장 임지은 편집위원 이재숙 조희수 최정우 최혜란 홍성숙 편집 강민아 성지희 김수아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www.instagram.com/
seoulywca_korea



www.facebook.com/
seoulywca



blog.naver.com/
ywcaseoul



검색창에
서울YWCA



검색창에
서울YWCA

Y-틴, 대학·청년YWCA 2026 연합인준식

서울Y는 5월 30일 2026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을 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올해 연합인준식은 Y-틴, 대학·청년YWCA 총 11개 동아리(184명의 회원)를

서울Y 공식 동아리로 인준하며 그 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로,

청(소)년 회원, Y-틴 지도교사를 비롯해 이사·위원 등 모두 83명이 함께했다.



말씀을 전하는 이은경 목사

방예경 평화운동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인준식은 ‘청소년·청년 동아리 활동 영상’으로 그 문을 활짝 열었다. 재능과 관심사에 따른 다양한 활동으로 환대와 포용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각각의 동아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울Y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 의식 또한 키울 수 있었다.

여는 예배에서 이은경 목사(감리교신학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바탕으로 「느슨한 연대에서 절대적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무한 경쟁과 승자독식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어렵겠지만 서로를 포용하고 연결하는 연대의 힘을 환대로 이어가자고 말했다. 내가 속한 연대, 흔히 말하는 연줄을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으로 확장해 가자고 권면했다.

“환대는 상대가 누구인지 따져 묻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끄는 공공성의 시작은 곧 ‘사랑(compassion)’입니다.”

이어진 정신여자고등학교 Y-틴의 활기찬 워십댄스 ‘That’s Who I Praise’는 축복의 열기를 전했으며 대학·청년YWCA 동아리 소리모아의 합창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은 감미로운 선율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격려와 축하 속에 이어진 인준장·임명장·위촉장·장학증서 수여
사진 왼쪽부터 진선윤(대학·청년YWCA 협의회 회장), 임혜원(서울Y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박소윤(Y-틴 협의회 부회장), 김태희(은하수 청년지도자), 조연신(서울Y 회장), 박주희(이천양정여고 Y-틴 회장), 배은경(서울Y 장학위원회 위원장)



정신여고 Y-틴의 활기찬 워십댄스 & 신나는 Y 퀴즈 현장

“YWCA 목적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Y-틴, 대학·청년YWCA 회원이 되겠습니다.”

조연신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인준식의 첫 순서로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는 회원 선서를 모두가 함께했다. 이후 인준장·임명장·위촉장·장학증서 수여가 격려와 축하 속에 이어졌다.

올해는 특별히 행운권 추첨 깜짝 이벤트가 마련됐다. 좌석에 숨겨진 행운권을 찾은 회원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온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울Y와 동아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준비된 ‘Y-퀴즈’ 코너가 주목을 끌었다. 동아리 별로 한 팀이 되어 Y 관련 퀴즈를 맞히며 자연스럽게

Y와 다른 동아리에 대해 알아가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진선윤 청년(대학·청년YWCA 협의회 회장)과 권재민 청년(소리모아 회장)이 사회를 맡아 유쾌하고 매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우승을 향한 열띤 참여와 응원이 이어졌다. 우승의 영예는 정신여고 Y-틴이 차지했다.

이번 연합인준식은 참석한 모든 동아리가 함께 교류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더욱 끈끈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Y-틴 청소년과 대학·청년YWCA 청년이 서울Y 안에서 환대와 포용의 마음을 품고, 정의롭고 다정한 연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한다. Y 정리 방예경 평화운동팀 활동가



기후위기, 신앙이 응답하다 A Moral Calling for Climate Action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

서울Y는 그린페이스(GreenFaith, 미국 기후정의단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

5월 13일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서울Y 회관에서 공동개최했다.

활동가, 신학자, 과학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신앙인의 연대와 연결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는 그린페이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두 달이 넘는 준비기간 동안 공동주최로서 세 단체는 한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중지를 모았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 신앙인의 책임을 돌아보고,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의 역할과 실천을 재조명하고자 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했다.

컨퍼런스는 한미미 서울Y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플레처 하퍼(Fletcher Harper) 그린페이스 상임 대표와 김지선(Grace Ji-Sun Kim) 그린페이스 한국 상임고문, 조연신 서울Y 회장, 인영남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의 환대 인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서 배은경 서울Y 소비자·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인도에 따라 여는 예배를 함께 드렸다. 말씀은 플레처 하퍼 목사가 신명기 30장 15-20절과 요한복음 10장 7-10절에 주목해 ‘생명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창조세계를 돌보고 있는지 돌아보자고 말했다. 극소수만을 이롭게 하는 화석연료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든 피조물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대 신앙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조강연에 나선 배현주 목사(전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는 ‘생태적 회심’을 통해 모든 신앙인이 기후회복과 평화를



기후 정의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한국 기독교 선언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모 관장(전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기후위기의 과학적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도왔다. 그는 기후위기를 벗어날 과학기술은 이미 확보

되어 있으니, 실행할 정책과 시민의 변화만 있으면 된다고 촉구했다. 더워지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이는 전쟁으로 귀결되니 결국 기후위기는 평화의 문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비건 점심식사 후에는 라운드테이블이 펼쳐졌다. 송진순 소장(한국교회환경연구소)이 진행을 맡고, 김보림 활동가(청소년기후행동), 김혜미 정책활동가(플랜1.5),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유에스터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임영신 대표(이매진퍼스)가 패널로 자리해 현장의 고민과 사례를 나눴다. 특별히 청소년 주체의 기후 소송을 주도해 2026 골드만환경상을 수상한 김보림 활동가는 “기후 위기는 권력의 문제다. 수많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에스터 활동가 또한

기조강연 ①

‘생태적 회심’으로 기후정의 위한 한목소리 내야

배현주 목사

기후위기는 신앙 공동체에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 문명적·신앙적 도전이다. 단순한 정책과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지구를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으로 인식하고 지역과 세계를 함께 바라보는 글로컬(Glocal) 시선으로 나아가는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에너지 체계의 기술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기후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포함한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생태적 회심(Ecological Metanoia)을 통해 생명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사랑과 기도, 연대의 실천 속에서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조강연 ②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닌, 실행 의지와 정책

이정모 관장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막대한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태도와 실천적 전환이다. 기후위기는 느낌이 아닌 데이터로 말해야 하며, 인간이 만든 변화인 만큼 인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연사의 대멸종 기록이 경고하듯, 기후 변화 앞에서는 언제나 최상위 포식자이자 가장 번성했던 종이 먼저 사라졌으며 지금 그 멸종의 대상은 다름 아닌 인류 자신이다. 그러나 절망할 이유만 있는 건 아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필요한 기술의 상당 부분은 이미 존재하며,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려는 사회적 의지와 정책적 결단이다. 따라서 기후행동은 단순히 불편을 참는 인내를 넘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체계와 지속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후활동가와 함께한 라운드테이블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앙과 서울로 가져오는 것이 과제다. 석탄발전소, 원전 등 보이지 않는 현장에 직접 가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를 권리와 정책, 생태 영성, 에너지 민주주의, 평화와 지역 공동체의 언어로 확장해 바라보며, 기후행동이 개인의 실천을 넘어 제도 변화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교회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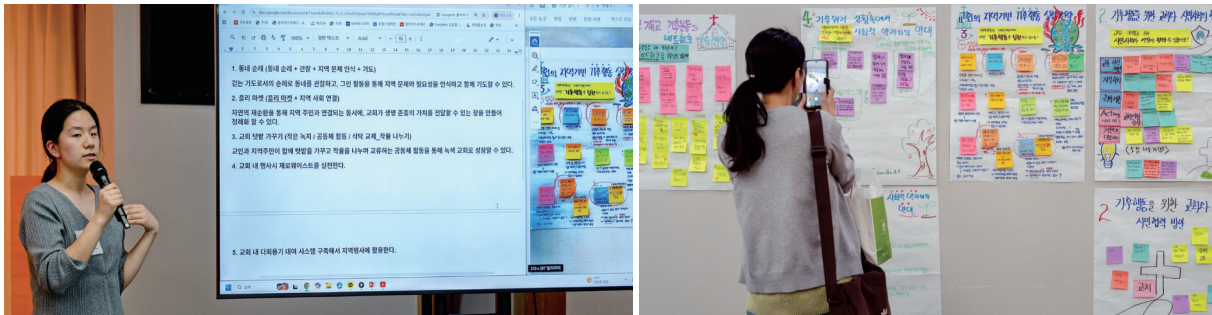
참가자 모두가 참여하는 그룹별 토론토 열렸다. 사전 참가 신청 시 선택했던 관심 주제에 따라 소그룹을 구성해 △교회 내부의 변화와 실천 △교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지역 기반 기후행동 △정책과 제도 변화 촉구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토론 결과는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공유되었으며, 흠어진 실천을 연결하고 교회와 지역, 시민사회와 정책의 현장에서 지속될 기후 행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컨퍼런스 마지막에는 참가자 전원이 ‘기후 정의를 위한

한국 기독교 선언’을 함께하며 실천을 다짐했다. 기후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임을 고백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정부와 사회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모든 이가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많은 기독교시민의 참여로 교회와 시민 사회 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었다. 행사 전반에 걸쳐 창조세계 돌봄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자료집은 종이 대신 PDF로 제공되었고, 다화용기 사용, 비건 한식 식사,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음료 제공 등 친환경 운영 방식을 적용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서울Y는 앞으로도 교회와 시민사회, 지역과 세계를 잇는 연대의 장을 넓히며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 정리_방윤옥 생명운동팀 부장

참가자 모두가 참여한 소그룹별 주제 토론과 발표



신앙, 기후정의 그리고 풍성한 생명으로의 부르심

플레처 하퍼 목사 ·그린페이스 상임대표



서울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서울YWCA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그리고 수많은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와 연대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 하라고 부르십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한복음 10:10)고 선언하심으로 이 약속을 다시금 확증하십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기후위기에 신앙적으로 응답할 것을 엄중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정의와 공평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은 기후 재난, 가뭄, 홍수, 식량 불안정, 강제 이주 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이들에 속합니다. 물이 부족해지고 경작에 실패하여 가족이 삶의 터전을 떠나 이주해야 할 때 여성은 종종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여성은 회복력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현실가운데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더 깨끗한 공기, 더 건강한 공동체, 더 확고한 에너지 안보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전환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수백만 명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혁신과 교육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한국이 기후행동 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우뚝 서는 데에도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목소리를 내고, 보다 과감한 기후정책을 지지하며 정의와 공평 그리고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책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신앙과 지혜 그리고 결단력을 보며 깊은 격려를 얻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시민이 앞으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기후 행동을 앞장서 이끌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신앙의 부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임을 삶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YWCA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더욱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생명을 살리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힘쓰는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26 시민걷기축제

“다들 뭐해? 같이 걷자!”

서울Y는 5월 16일 '다들 뭐해? 같이 걷자!'라는 주제로

2026 시민걷기축제를 남산공원에서 개최했다. 올해 축제에는 시민 400여 명이 참여해 '여성의 연대로 만드는 환대와 포용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했다.

특히 걷기 코스에는 서울YWCA 3개년(2026-2028) 비전사업 'G.O.O.D Impact'를 소개하는 패넌을 배치해 사업의 내용을 알리며 시민의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비전사업 다른 그림 찾기, 제로웨이스트 커피 나눔,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정 양립 캠페인 등의 다양한 체험마당도 펼쳐졌다.

행운권 경품 추첨까지 풍성했던 올해 시민걷기축제는 안전하고 즐겁게 마무리됐다.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서울Y 걷기축제,

내년 봄에는 보다 많은 회원과 시민이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회선언하는
이지선 걷기대회준비위원장



올해도 완주!
내년에도
도전합니다~



행운권 당첨은 행복이죠^^



서울Y는 굿이죠~
G.O.O.D Impact
비전사업!
함께해요

백범광장에서
펼쳐진 체험마당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서울Y 걷기축제





일상의 돌봄과 연대가 곧 평화의 기반입니다

돌로레스 가르시아 에스칼란테
멕시코 유카탄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인 공동체가 서로를 지켜낸 기억의 공간입니다.”
멕시코 유카탄에 위치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은
1905년 이주한 한인들의 삶과 그 후손 공동체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다. 박물관은 한인 후손 공동체가
직접 설립했으며, 현재도 공동체의 기억과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관장 돌로레스 가르시아 에스칼란테는
한인 여성들의 돌봄과 연대 그리고 공동체가 축적해 온
회복의 경험이 유카탄 한인 이민사의
평화 서사를 이뤄왔다고 말한다.

유카탄 한인이민사박물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물관은 멕시코 한인 후손 공동체에 의해 설립되어
2007년 8월 15일 개관했습니다. 건물은 1905년 이주
한 선조들이 1934년 공동으로 구입한 집으로, 명절을
함께 보내고 음식을 나누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
치던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었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유카탄 한인들의 이주 역사와 고난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삶의 흔적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은 박물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요

저는 1905년 이주한 김수봉님의 손녀입니다. 지난 8년
간 박물관 관장으로 일하며 방문객 투어를 진행하고,
한인 후손을 인터뷰해 가족사와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사진, 문서, 유물 기증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축적
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멕시코 이주 이후 형성된

유카탄 한인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뿌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유카탄의
마야-스페인 문화를 함께 살아가는 이중문화 공동체
입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고 어른들이 쓰던 말과 자장가를
기억하는 동시에, 이 땅의 언어와 관습 속에서 살아왔
습니다. 두 문화는 분리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함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경험으로 멕시코 한인 역사를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왜 고국을 떠나야 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국에서의 비극적 상황, 험난한 이동 과정,
도착 후 언어와 노동 환경 속에서 겪은 고통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모든 조건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키며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인내와 저항의 정신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멕시코 한인 이민사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농장 노동자 집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군인,
기술자, 전문가, 아이들과 여성까지 함께 이주했고
특히 여성도 농장 노동과 공동체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모임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논의하며 자금을 모아 보냈다는 사실은 박물관을 통해
서야 비로소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차별과 긴장 속에서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였을까요

공동의 정체성과 단결력, 그리고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돌봄과 가족 중심의 생활은
공동체를 해체되지 않게 붙잡아 주는 기반이 되었습
니다.

유카탄 한인 이민사에서 여성은 어떤 역할을 해왔나요

여성들은 생존과 공동체 유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농장
노동을 돕고 아이들을 돌보며 현지 음식 적응이 어려운
병든 이들을 위해 직접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메리다에 정착한 이후에는 여성들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
한국 음식과 생활 방식을 전수했습니다. 또한 한인협회
활동에 참여하며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지탱했습니다.

여성의 기여는 평화와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여성은 어머니이자 인도자, 협력자였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며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삶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돌봄과 연대가
공동체의 안정과 공존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이 곧 평화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민사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한인들의 경험은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다시



멕시코한인회의 모금을 통해 2025년 새롭게 리모델링한 유카탄 한인박물관.
주멕시코한국대사관과 재외동포청도 보조금을 지원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극심한 조건 속
에서도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며 생존했고,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공동체적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시민사회와 젊은 세대가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성찰해야 할까요

후손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선조들이 겪은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 또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 사회에 통합되어왔는
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타자를 이해하고
공존을 이루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앞으로 이민사 전시와 기록은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면 좋을까요

후손들과 더 깊이 소통하며 개인의 삶과 기억을 더 많이
기록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지역사회와 공존해 왔는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고 싶습
니다. 이러한 서사가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진행 · 정리_평화운동팀

* 본 원고는 평화운동팀이 진행한 비대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축약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순종의 지도자 모세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드러낸 사람은 모세다. 모세는 고난 가운데 다듬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유일한 사람이며, 애굽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해방의 길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다. 모세의 120년 인생은 애굽 왕실의 왕자로서 온갖 수혜를 누린 40년,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 후 장인 이드로의 양치는 목자로서 지낸 연단과 인내와 비움의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오로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 광야 생활 40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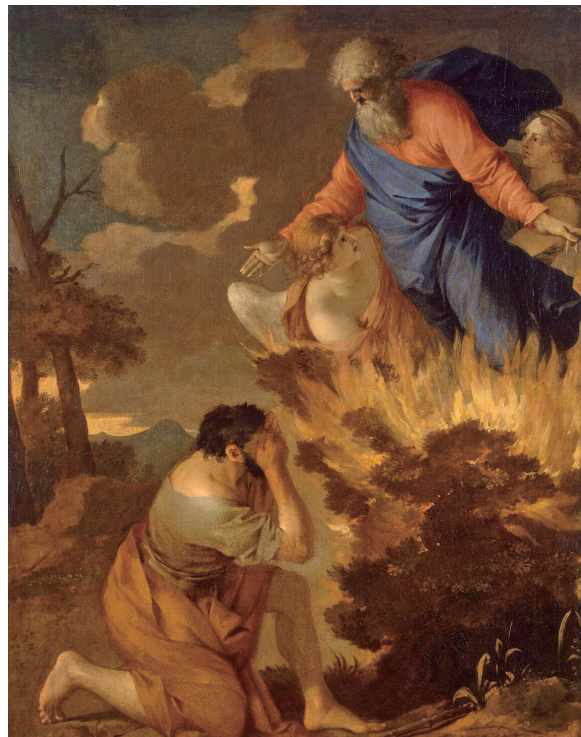
부르심의 순간을 그린 세바스티앙 부르동

80세가 된 모세는 이제 혈기를 참지 못하던 청년이 아니라 도망자라는 불안감 속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며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었다. (이 사람 모세는 온 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 민수기 12:13)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의 손에서 동족을 구할 것을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영웅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민족의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광야의 한 목자에게 친히 찾아와 엄청난 일을 요구하신 것이다.

프랑스 화가 세바스티앙 부르동(Sébastien Bourdon,

1616 - 1671)은 그의 그림 「불타는 떨기나무 앞의 모세」에서 부르심의 순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임재로 관목 사이에 불이 붙어 있으나 나무는 타지 않고, 하나님은 두 사자의 호위 속에 영광스런 모습을 보이신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애굽기 3:5)”는 말에 따라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 뵈기를 두려워하여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고 있다. 신발은 내가 신고 싶은 신을 택해서 내가

세바스티앙 부르동 「불타는 떨기나무 앞의 모세」 1642-1645. 캔버스에 유채, 136x106.5cm. 에르미타시 박물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다니는 나의 자아를 의미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시기에 신을 벗으라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하시며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친히 강한 이적을 행할 것이며 친히 무슨 말을 할지 가르치시겠다고 하신다. 또한 모세가 지니고 다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모되어 그 지팡이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출애굽기 4:22)”고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구하시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대행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이에 바로 순종한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세에 주목한 부오나로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는 입이 둔한 자신을 대신할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를 요구하지만 듣지 않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쳐 애굽에 연속으로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 무사히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을 끝없이 내뿜었다. 백성의 수는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런 백성들을 다스릴 제도가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시고, 법과 제도를 알려주시고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며 맞닥뜨린 적군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행진하고 쉬라 할 때 쉬며 백성을 인도한 영적 권위를 지닌 지도자였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이자 조각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의 대리석 조각 「모세」는 수많은 세월 동안의 연단과 강인함, 지혜와 신앙을 보여주는 근육질의 모세를 보여준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기신 증거판 돌을 받아 내려와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목격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모세」 1513-1515. 대리석, 235x210cm. 교황 율리오2세의 무덤 조각 중 하나, 산 피에트로 빈콜리 성당, 이탈리아 로마

하기 직전의 긴장감을 드러낸다. 머리의 뿔 같은 것은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광채를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 모세의 경우에는, 가데스에서 물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으나,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손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다. ♡

‘실비아 아칸’ 국제 여성인권 활동가와의 만남



서울Y는 5월 15일 2026 광주인권상 수상자 실비아 아칸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광주인권상은 5·18기념 재단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활동가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실비아 아칸 활동가는 ‘골든 우먼 비전 인 우간다(Golden Woman Vision in Uganda, GWVU)’의 설립자로서 우간다 내전으로 인한 납치, 성폭력 등 구조적 인권 침해 생존자와 연대해왔다. 현재 GWVU는 제빵, 재봉, 비누 제작, 공예 등 직업훈련을 운영하며 600명 이상의 여성과 청소년이 생계를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서울Y와 GWVU의 활동을 서로 소개하고, 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미 국제협력위원장은 누리봄, 미안마 권리 증진 프로젝트,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등 서울Y의 다양한 활동을 공유했다. 실비아 아칸 활동가는 특히 핑크박스 사업(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우간다 청소년 중 상당수가 월경 기간에 생리대가 없어 등교를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GWVU가 직접 생리대를 만들어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공장을 설립해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실비아 아칸 활동가의 2026 광주인권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서울Y와 GWVU 그리고 우간다Y의 연대를 중심으로 국제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연대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2026 신입위원 교육

서울Y는 2026 신입위원 교육을 5월 28일 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6명의 신입위원이 참석해 YWCA 목적과 정체성, 역사에 대해 배우며 YWCA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서 비전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별 활동도 알아 보았다. ‘선배 활동가와의 만남’ 시간에는 정선덕 이사가 자신의 경험과 활동 사례를 진솔하고도 힘있게 나누며 후배 활동가인 신입위원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앞으로 신입위원 모두가 환대와 포용의 리더십으로, 서울Y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리더가 되길 기대한다.



강남청소년센터

아동·청소년 권리증진교육

강남청소년센터는 5월 21일 강남구 구룡초·일원초 총 14학급, 370명의 학생과 아동·청소년 권리증진교육을 함께했다. ‘아동·청소년 4대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번 교육은 생존의 배, 우리학급 권리지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장난과 권리침해(폭력)의 경계를 구분하고, 나의 권리만큼 친구의 권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초등돌봄교사 양성과정 일자리협력망 자문회의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20일 초등돌봄교사 양성과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일자리 협력망 자문회의를 열었다. 초등돌봄 분야 관계자, 센터 실무자 등 10명이 참석해 초등돌봄 분야 취업 동향과 인력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수료생의 취·창업 지원과 현장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누리봄

감사의 달 행사

누리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푸른 감사의 달 프로그램 - 사랑 두 배 행복 두 배’를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했다. 누리봄 입소 4가정, 총 14명이 함께 롯데월드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봄옷 선물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했다.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예방 실천약속 캠페인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16일 남산에서 열린 시민걷기축제에서 ‘경력단절 예방 실천약속 캠페인’ 부스를 운영했다. 이모지 퀴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생활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으며, 총 87명이 서명으로 동참의 뜻을 밝혔다. 또한 노원센터 주요 사업을 알리며 돌봄·가사분담과 포용적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날 ‘같이놀장(場)’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9일 놀이마당 ‘같이놀장(場)’을 열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놀 권리를 보장하고 이웃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행사로, 놀이·체험·먹거리 부스 등 30개 이상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600여 명의 주빈을 비롯해 협력기관 4개소와 대학생·청년봉사단 12개 단체 등 총 250명의 자원봉사자도 함께하며 지역사회 연합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10주기 여성주의연합예배 딸들이 해마다 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서울Y는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10주기를 맞아 5월 14일 보신각에서 여성주의연합예배를 드렸다. 서울Y를 비롯한 25개 단체가 공동주관한 이번 예배에는 160여 명이 함께하여 강남역 여성혐오범죄를 기억하고 연대했다. 타종과 낭독으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와 다이인(Die-in)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후 강선구 목사(강남향린교회)가 '함께 우는 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사사기 11장, 입다의 딸을 위한 친구들의 애곡을 예배와 연결 지으며 '오늘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외면하지 않기 위해 몸으로 여기에 서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력의 언어는 강하고 질서는 견고합니다. 그 질서에 금이 가는 것은 거대한 반격이 아니라, 서로의 생채기를 몸에 새기고 함께 아파하는 몸들의 흐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예배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길 기도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언니들의 혼샐 스킬 업

서울Y는 6월 18일 '언니들의 혼샐스쿨 : 돈과 집' 1강 '자산관리'를 4층 대강당에서 열었다. 비혼 여성의 현실적인 자산관리와 재테크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의에는 80여 명이 참여했다. 강사 박주현 대표(포용적 금융 서비스 '프리즘지점' 대표)는 자산관리를 3층 구조 즉 1층은 위험관리, 2층은 저축과 투자, 3층은 노후 준비에 비유했다. 이어서 ISA, 연금저축, IRP 등 절세계좌의 개념과 역할을 설명하며 참가자의 이해를 도왔다.

재테크에 관해서는 투자의 기본 원칙과 함께 기간별 자금 운용에 대해 조언하며 '중요한 것은 남들의 속도를 따르거나 불안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혼은 혼자자 아니라 다른 방식의 '함께'라는 메시지로 끝맺은 강의는 만족도 약 93%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언니들의 혼샐스쿨은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여성의 연대로, 환대와 포용의 하모니



Piano 박종훈



Contemporary Jazz Artist
Saxophone Danny Jung



Soprano 강혜정



Baritone 양준모

GOOD Impact 104 years

2026 서울YWCA 특별후원음악회



Tenor 국윤종



Electone 한윤미



Band WINSOME

2026. 9. 19. (토) 15:00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티켓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문의 02-3705-6000

신규 프로그램 안내

노원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SW-AI융합교육전문가	8월 24일(월) - 11월 9일(월) (월-금) 14:00-18:00
세무사무원양성	8월 31일(월) - 12월 10일(목) (월-금) 14:00-18:00
보험총무사무원양성(2기)	8월 31일(월) - 11월 16일(월) (월-금) 09:20-13:20

영등포

•문의 02-858-4514(내선 1번)

과정명	교육일정
세무실무전문가	8월 12일(수)-10월 15일(목) (월-금) 9:30-13:30
ERP아파트회계사무원	8월 13일(목)-10월 23일(금) (월-금) 14:00-18:00
디지털서비스 융합전문가	8월 19일(수)-10월 29일(목) (월-금) 14:00-18:00

서울Y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서울
와이

아직도 친구가 아니신가요?


 인스타그램
@seoulywca_korea


 유튜브
서울YWCA 검색


 카카오톡
Q 검색란에 서울YWCA

팔로우 신청

구독 버튼

채널 추가

2026년 글로벌 시민 아카데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평화의 자리

서울Y는 최근 전쟁과 군사적 긴장, 힘의 대결이 일상화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국제 사회 긴장이 평화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 일시 8월 6일-27일 매주 목요일 19:00-21:00
- 장소 서울Y 마루 & 온라인 ZOOM
- 문의 02-3705-6069

- 1강 국제 정세의 현황과 전망
이혜정 교수_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2강 국제 사회 긴장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김영미 PD_ 분쟁지역 전문 PD,
PD수첩 '러우 전쟁과 북한군' 취재
- 3강 비폭력 평화의 의미와 가능성
조영미 박사_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4강 평화의 자리를 만드는 우리의 대화(대화 모임)

서울YWCA '북멘토링 프로젝트' 북멘토가 되어주세요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3705-6034

참정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일부 시민들은 사실상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선거 관리 실패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이다. 따라서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선거 관리 실패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사전 준비와 수요 예측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제로 발생한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다.

다만, 그 과정이 분명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공방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수단의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정부는 법령 위반 여부와 업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관과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라.
-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한 표 한 표가 동등하게 존중받고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거 제도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10일

한국YWCA연합회

2026 7
냉장고 아껴주는 달

월	화	수	목	금	토
		1	2 · 언니들의 혼살스쿨 : 부동산(9일) 19:00	3 · 대학 · 청년YWCA 협의회 모임 9:00	4 · 영화 <남태령> 공동상영회 + 감독과의 대화 13:00 · 씽크머니 정기모임 (18일) 15:00
6	7 위원회 재정부 11:00	8	9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 씽크머니 교육(구로중) 8:50	10	11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바노들 농가 소비자체험 8:00 · 울력 정기모임 13: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4:00
13 · 역대이사모임 11:00	14 이사회 10:00 · 2026 정책워크숍 13:00	15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16	17 제한절	18 · 은하수 멘토링 14:00
20	21 위원회 영등포Y 10:3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22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23 위원회 누리봄Y 11:00	24 위원회 강남Y 10:30	25 · 소리모아 여름 정기공연 (@서교스퀘어) 17:00
27 위원회 봉천Y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평생체육팀 18:00 · 누리봄 돌봄강화 프로그램 (~28일)	28	29	30	31	

2026 8
에어컨 온도 3℃ 높이는 달

월	화	수	목	금	토
					1 · 씽크머니 정기모임(15일) 15:00
3	4	5	6 · 글로벌 시민아카데미 (~27일, 매주 목) 19:00	7	8 · 울력 정기모임 13: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4:00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7 대체휴일	18 위원회 홍보출판팀 11:00	19	20	21	22
24	25 위원회 임원 12:00	26	27	28 위원회 인사 11:00	29
31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 2026년 5월



특별 후원

- 장학금 김 형 민홍숙 이주영
- G.O.O.D. Impact 사업 후원 장윤재
- Y-틴, 대학·청년YWCA 청소년위원회 연합인준식 후원
- 실무자연수 후원 인사·지도자양성위원회



재능 기부

-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 2026년 5-6월 회보 '미술로 읽는 성경' 칼럼 기고



일반 후원

고선헌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기영숙	김미자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현경	김 형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배은경	배정미	서해영
석성옥	송순옥	양수경	오준호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애진	이유리	이유림	이운선	이행자
이홍자	이홍자	임중현	장민경	장수자	정석용	정은숙
조순영	조연신	조종남	채서은	채재호	최경자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고려옥	월요카페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북돋로링 후원

구영숙	김민아	김상희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진숙
김한나	김혜경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우영숙	이연배	이운선	이정희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모아	조민형	조연신
최동수	최 봄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월요카페	창진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록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문숙
강민아	강선경	강성길	강수미	강시현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윤정	강주현	강창석	강혜진	강효미	강희경
경규연	계숙화	고경혜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화	고재옥	고홍애	공명주	공민호
공민희	곽민정	곽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연미	구지영
권경자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정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태진	권현준
권형하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선복	길소연
길용선	길종선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관옥	김광희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나영	김남미	김동은	김동형	김동화	김말녀
김명수	김명희	김문휘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정
김미희	김민선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보명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덕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자

김선화	김성민	김성준	김성혜	김성희	김세진	김소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현	김순경	김순남	김순자	김순해
김시은	김시은	김애숙	김양선	김예스터	김연경	김연순
김연희	김영숙	김영심	김영옥	김영혜	김예지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숙	김우인	김원경	김유경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나	김윤전	김윤정	김윤종	김윤지
김윤지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혜
김은혜	김익동	김인석	김자희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완	김정자	김정환
김종숙	김주희	김준희	김지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향	김진호	김철규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충현	김태숙	김태연	김태준	김태한	김통범	김하은
김한규	김해정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우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순	김형순	김형원	김형태
김혜규	김혜성	김혜양	김혜진	김화숙	김효숙	김희열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김희진	나미정
남궁정	남궁진	남궁혜정	남연정	남윤경	남형주	남희숙
노남례	노병균	노연순	노인화	노현주	노혜환	동지현
류경아	류다경	류미현	류종현	류 혁	마신웨	마채은
마초희	명정신	문경혜	문다영	문미경	문선영	문신환
문자영	문종숙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난영	박노영
박대근	박덕규	박도원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영
박미용	박민선	박민호	박상수	박서호	박선미	박소현
박소현	박송아	박순예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용진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윤애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정숙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화	박종희	박주원	박지연	박 진	박진용	박진향
박진화	박찬인	박채원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혜리	박혜수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윤옥	방윤우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은경	배은주	배은진	배정미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광옥	백명숙	백선옥	백성희	백옥선	백운순	백은선

백정금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서경희
서근배	서탁원	서명수	서미화	서민경	서옥덕	서원석
서은경	서정연	서지영	서지영	서해원	서현옥	서혜승
서혜원	석상화	석성옥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연석
성영환	성운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진원	손근희
손소영	손지현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실	송세은
송옥의	송윤주	송윤화	송은아	송재임	송제환	송종우
송창은	송혜승	신경아	신동선	신상용	신승우	신연식
신용자	신종인	신지숙	신진실	신찬용	신현경	신현미
신화옥	심경호	심창섭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운
안영호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준태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희란	양다현	양봉규	양세진	양수정	양영화
양종숙	양진화	양현옥	양혜진	엄수길	엄현진	여명진
염용희	오경신	오경아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오충민	오해동	오혜영
온기석	왕정애	용현중	우수경	우승현	우재하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위정선	유남석	유남실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순희	유승연	유승효
유예나	유예목	유원균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진아	유현숙	육순연	윤경례
윤경숙	윤광미	윤문노	윤방현	윤복례	윤상은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윤희	윤장범
윤재숙	윤재양	윤재혁	윤정향	윤지영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효석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노	이경숙
이경애	이경연	이경연	이정옥	이경자	이경주	이경희
이경희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순	이금재	이금희
이기쁨	이기현	이기화	이남연	이남진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자	이명혜	이민석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희
이상길	이상명	이상옥	이상원	이상윤	이상해	이상훈
이선미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윤	이수진	이숙용	이순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천	이슬기	이승곤	이승국	이승연
이승윤	이승진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신
이연수	이영대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숙	이영우	이영자	이영진	이영화	이영희	이예은

이옥경 이용균 이용호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빈
 이윤선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혜
 이은희 이의곤 이인석 이인성 이임수 이재건 이재경
 이재길 이재옥 이재옥 이재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숙 이정은 이정인 이정한
 이정현 이정훈 이정희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이지아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창희 이채진 이태림 이푸른하 이한나 이항재
 이 행 이행남 이행자 이현국 이현순 이현미 이현아
 이현옥 이혜미 이혜원 이혜주 이혜준 이혜진 이호섭
 이효정 이희전 이희찬 임미영 임병일 임성준 임승훈
 임양수 임옥영 임은유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임중현 임지연 임지은 임지현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현희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명자 장민조 장선희 장성호 장세린
 장수용 장영옥 장영은 장예선 장용익 장주현 장지현
 장철승 장현주 장화선 전경희 전덕기 전민구 전병규
 전병우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지 전오연 전운숙
 전인옥 전재수 전행옥 전현숙 정경문 정경미 정경원
 정대필 정동신 정미선 정상미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윤영 정윤정 정윤희 정윤희 정은주 정재현 정재훈
 정정애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징자 정한얼 정해운 정현서 정현승
 정현아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조계연 조규성

조규영 조규영 조규원 조규원 조길수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환 조성환
 조세환 조연수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조원식 조윤신
 조재상 조정현 조정현 조정희 조중희 조한솔 조한준
 조형운 조혜성 조혜전 조홍신 조희수 주명애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지복임 진가인 진부향 진영선 진재승
 차경희 차미연 차하나 채재호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희 최문정 최민영 최 봄 최서래 최성현 최순자
 최순태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영실 최영주 최운영
 최유정 최운서 최운호 최은성 최은주 최인숙 최정현
 최정호 최종대 최준명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현
 최진숙 최현경 최혜란 최혜원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미미 한민희 한성우 한승연 한승우 한승희 한예성
 한옥연 한완영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운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혜정 현은순 홍경화 홍서희 홍선미
 홍성숙 홍수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현표 황명숙 황보영 황선미 황순분 황어진 황용하
 황지희 황현순 황홍숙

(주)건축사사무소빅 (주)지인에프앤씨 그린에이전시
 김진경디자인스튜디오 노무법인 한승 로막시모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센트럴디자인 솔샘건축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아뜰리에 더 라엘 아름경희한의원
 양재2동어린이집 조명팩토리 주식회사 아이통교육
 주식회사 아키웍스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주식회사콤마코리아
 진한의원 파티인테이블 향기나무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08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OPE

미디어 아카데미

요즘 밈, 어디까지 웃고 어디부터 차별인가

서울Y는 2026년 성평등 미디어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 아카데미「요즘 밈, 어디까지 웃고 어디부터 차별인가」를 열었다. 1회차는 5월 13일 회관 마루에서, 2회차는 5월 20일 온라인 ZOOM에서 진행됐다. 도우리 작가(「우리는 종독을 사랑해」 저자)를 중심으로 선착순 신청을 통해 시민 19명이 함께했다.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군 ‘테토녀’, ‘에겐남’ 밈. 얼핏 보면 기존의 여성성·남성성을 벗어난 새로운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번 아카데미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과거에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점차 사용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에겐·테토라는 새로운 이름은 별 다른 문제의식 없이 널리 소비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익숙한 성 역할 규범이 새로운 언어로 포장된 것은 아닌지, 왜 이런 밈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성호르몬을 근거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밈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살펴보았다. 복잡한 개인의 특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하고 싶어 하는 사회적 욕구가 밈의 유행과 맞닿아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욕구가 MBTI 열풍과도 닮아있다고 의견을 모으며, 밈이 개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언어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정관념을 강화할 위험 역시 갖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강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젠더 밈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가족 임금에 기반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약화되고 돌봄과 관계 맺기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 속에서 다정하고 부드러운 남성상이 주목받는 현상을 에겐남 밈과 연결해 살펴보았다.

동시에 이는 더 이상 기존의 이성애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안과, 그럼에도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는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다는 해석을 나누었다.

밈을 단순히 가볍고 재미있는 인터넷 문화로만 여겨왔는데, 그 안에 당대 청년들의 불안과 욕망, 관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함께한 참가자들은 이야기했다. 또한 밈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회차 강의 후에는 ‘웃고 넘기기엔 어딘가 찝찝했던 밈이나 유행어’를 주제로 비평문을 작성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2회차에서는 각자가 써온 글을 함께 읽고 의견을 공유하며, 밈과 유행어 속에 숨어 있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밈을 소비하며 웃고 공감한다. 그런데 때로는 그 웃음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미디어 아카데미는 익숙한 유행어와 밈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쓰는 힘을 함께 키워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서울Y는 시민과 함께 일상 속 미디어를 성찰하고, 보다 성평등한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정리_김예선 여성운동팀 활동가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회원 소식

이연배 증경회장 · (주)오토젠 대표이사



5월 19일(화)
202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이희전 이사 · 시설운영사업위원장
6월 15일(월) 모친상

김군태 명예위원
6월 18일(목) 시모상

이희전 이사 · 시설운영사업위원장
아들 이상욱 씨
9월 5일(토) 오후 2시 30분
더캐플앤논현 3층 라포레홀에서 결혼

박미용 재무회계팀 총괄부장
딸 윤희원 씨
9월 6일(일) 오후 1시 20분
웨스턴베니비스 신도림 다이내스티홀에서 결혼

감사합니다

2026 서울YWCA 시민걷기축제 후원

김선희	김순임	김 형	박위자
박정희	배은경	백옥선	송세실
위은희	윤혜선	이경연	이복희
이연배	이유림	이은령	이지선
이행자	이희전	임지은	임혜원
전현숙	정선덕	정수경	조연신
주현영	차귀숙	차미연	최 불
최재숙	최한나	한혜영	황성연

봉천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	삼성전자(주)
여성능력개발위원회	서울우유협동조합
여성참여위원회	선일금고
청소년위원회	스타벅스코리아
평생체육위원회	주영이앤씨
홍보출판위원회	(주)LG생활건강
	(주)농심
CJ제일제당(주)	(주)빙그레
LG전자(주)	(주)산티아고앤
더스킨화장품	(주)오뚜기
동서식품(주)	주식회사 하나은행
롯데웰푸드(주)	
매일유업(주)	

유한킴벌리 × YWCA 사단법인 서울YWCA

신혼부부학교

SINCE 2009

Let's PICNIC

2026

41기

무자녀 신혼부부

25쌍(50명)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9월 5일(토)

10:00~16:30 @서울YWCA 대강당

42기

유자녀 신혼부부

25쌍(50명)

정우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9월 12일(토)

10:00~16:30 @서울YWCA 대강당

Let's PICNIC

Positive Interaction
Creates New Insights for Couples

사랑하는 배우자와 두 손 꼭 잡고 떠나는
설레는 가을날의 소풍!
달콤한 신혼과 치열한 육아의 리얼 스토리,
우리 같이 나누어 볼까요?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신혼부부를 초대합니다.

소통 피크닉
낭만 가득한 명동 일대 데이트

맛있는 점심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라운드테이블
멘토와 함께 진솔한 경청·공감의 시간

올해 딱 50커플만,
특별한 여정에 함께합니다

신청기간

7월 15일(수) ~ 8월 17일(토)

신청대상

41기 무자녀 신혼부부 50명(25쌍)

예비부부&결혼 3년 차까지
*임신 중인 신혼부부포함

42기 유자녀 신혼부부 50명(25쌍)

결혼 7년 차까지

참가예약금

5만 원(커플당)

*행사 종료 후 참가 부부에 한 해 전액 환급

신청방법

서울YWCA
홈페이지

OR

신혼부부학교
공식 블로그

서울YWCA 홈페이지,
신혼부부학교 공식 블로그 선정 발표
*선정된 커플에게는 개별 문자드립니다

문의 | (사)서울YWCA 02-3705-6034



황에스더

독립운동가
농촌계몽운동가
제4대 YWCA 회장
1892-1971

“남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므로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청년 황에스더 (1919. 2. 6.)

황에스더 선생은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송의여학교에 재직하며

1931년 비밀결사대 ‘송죽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주도했다.

비밀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항일정신을 고취하고

군자금을 모금해 중국의 항일단체를 지원했다.

1918년에는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해 동경유학생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일본 도쿄 2·8독립선언에 앞장서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 후 3·1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잡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선생은 농촌계몽운동에도 힘썼다. 미국 유학 후 1929년에 귀국,

협성여자신학교 농촌사업지도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소설 「상록수」 주인공의 모델이 된 최용신이 그의 제자이다.

선생은 당시 농촌운동을 주도하던 YWCA·YMCA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농촌운동의 씨앗을 함께 뿌린다.

김필레, 유각경, 신의경 등 교육받은 신여성들과 힘을 모아

처음 YWCA 조직에도 기여한 선생은

1924년부터 1925년까지 제4대 YWCA 회장을 맡아 헌신했다.

해방 후 여성단체총협의회를 구성해 초대 회장으로 일했고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고국 재건에 힘을 보탰다.

1963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선생에게 추서되었다.

(사)서울YWCA www.seoulywca.or.kr 대표전화 3705-6000

지역번호 02

소비자정보센터 1372, 3705-6060
스포츠센터 수영·필라테스·피트니스 3705-6030
서울돌봄과살림 가사돌봄·산후조리사·아기돌봄 3705-6013~4
간병사 3705-6071~2

봉천종합사회복지관 www.bongchunhy.or.kr 870-4400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ydp.seoulwomanup.or.kr 858-4514~5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www.job365.or.kr 951-0187~8
강남청소년센터 www.gangnamyc.or.kr 544-9725~6